



중구 참깨오리, 먹킷리스트 맛으로 푹푹 뭉친 초류향



서울 중구 참깨오리가 소개됐다. 10월 31일 방송된 SBS '생방송투데이'에는 중구 참깨오리가 '먹킷리스트'에 소개됐다. 참깨가 가득 붙은 강정갈기도 하고 떡갈기도 한 의문의 비주얼. 한 입 먹으면 그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지는 주인공은 참깨오리였다. 참깨의 향 이후에는 고소한 맛이 올라온다는 참깨오리는 그 조합조차 신선했다. 참깨 한걸음 살며시 들추면 그 아래 오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입 먹는 순간 미식의 세계에 눈뜨게 해준다는 참깨오리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참깨와 오리의 만남에 남녀노소 없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첫입에는 참깨가 압도하지만 두번 세번 먹다 보면 오리의 향이 점점 진해졌다. 고기의 감칠맛이 특히나 좋다는 참깨오리를 만드는 주방을 찾아갔다. 주인장이 중국 유학을 갔을 때 접하게 된 참깨오리를 메뉴로 개발한 것. 큼지막한 통오리를 간장 베이스의 소스에 익혀내는 것이 포인트였다. 향긋한 빵의 냄새까지 난다는 참깨오리는 그 자체로 궁금증을 자극했다.

〈SBS〉



수영 서툰 오리 보고 물로 뛰어든 천사견.. “내가 구해줄게”



홀로 호수 한가운데에서 뒤통거리며 수영하는 오리를 본 강아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구조하러 나섰다.

10월 30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는 수영을 서툴게 하는 오리를 구조하러 물로 뛰어든 리트리버 ‘테일러’를 소개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한 유저는 최근 골든 리트리버 테일러와 함께 공원으로 놀러 갔다. 한참 산책을 하던 녀석은 무언가를 보고 안절부절못하더니 갑자기 호수를 향해 뛰어 들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호수 한가운데에서 수영을 서툴게 하는 오리를 보고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뛰어가 구조를 한 것이다. 화들짝 놀란 보호자는 테일러를 향해 내려놓으라고 했다.

이에 오리를 바닥에 내려놓은 녀석은 오리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야 밖으로 나왔다.

열심히 수영을 하다가 구조 당한(?) 오리는 어리둥절해 했다. 그런 녀석을 보고 걱정된 테일러가 다가가려 하자 보호자는 혹시 몰라 막아섰다.

이후 오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다시 열심히 헤엄쳐 갔다. 테일러의 뜻밖의 행동에 보호자는 한참을 웃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음씨 착한 강아지”, “오리를 구해줄 필요는 없어”, “오리 표정 너무 웃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티투데이〉